◎ 발명의 날 기념 발명실화 ◎

발명왕 장영실의
소 년 시 절

글 : 왕 연 중

사람들은 발명왕하면 토마스 에디슨을 제일 먼저 꼽는다. 그렇다. 에디슨은 분명 세계적인 발명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발명왕은 누구인가? 필자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발명인 장 영실을 꼽는다.

그는 비록 관노(관가의 종)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정 3품 무관 벼슬인 '상호군'까지 오르며, 세계적인 발명품인 물시계를 비롯하여 수많은 발명을 하여 우리 나라 사람의 슬기와 지혜를 전세계에 떨쳤다.

불쌍한 소년, 관기의 아들

영실은 조선시대 초기 고을 현감의 수발을 드는 관기(관가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였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으나 관기의 아들이라는 천한 신분이어서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었다.

어쩌다 친구가 되고 싶어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면, 그는 어김없이 놀림거리가 되어 버렸다.

"관기 자식아! 너는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면서…"

"똥개보다도 천한 자식이 이름이 어떻게 장영실이냐? 똥개실이지."

"현감 옆에 앉아 술이나 따르고 노래나 부르는 관기의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 들어. 어서 꺼져버려."

이런 놀림들은 어린 영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 때문에 그는 항시 혼자였다. 천민인 관기의 아들이라 글공부도 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고을마다 서당이란 곳이 있어 어린이들은 천자문(千字文)을 시작으로 글공부를 했으나, 천민의 아들은 글공부는 커녕 서당앞의 길도 밟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순순이 포기할 영실은 아니었다. 그는 매일같이 서당 마루 밑에 숨어들어 천자문을 읽었다. 그러나 보름도 채 못되어 서당 아이들에게 발각되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만 얻어 맞고 쫓겨나고 말았다.

그래서 찾기 시작한 곳이 산과 들이었다. 산과 들, 그리고 그곳에 자라는 나무와 풀·꽃·돌·새…들만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를 괴롭히고 놀리는 양반집 아이들도 그곳엔 없었다.

산과 들은 그에게는 천국, 바로 그곳이었다.

산과 들을 찾으면서 그에게서는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이름모를 꽃과 풀 그리고 나무 한그루까지 그에게는 귀중한 친구였다.

나비도 잡고, 잠자리도 잡고, 개미들이 땀흘려 일하는 모습을 살피며 자연의 이치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그러다가 산토끼라도 한마리 발견했다하면 하루 종일 뒤쫓아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나비 한마리, 잠자리 한마리 죽이지 않았고, 꽃한송이 꺾지 않았으며, 잡았던 산토끼도 되돌려 보냈다. 모두가 자기처럼 외롭고 불쌍한 친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느 사이 그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소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집안에서도 그는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집안의 흙과 짚 그리고 나무조각을 이용하여 물레방아·쟁기·달구지·삽·괭이·호미·낫 등 각종 농기구의 모형을 만들며 하루를 꼬박 보내기도 했다.

이때부터 영실에게는 사물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각종 모형을 만들어 보는, 발명하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싹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풀 한포기, 하찮은 돌하나, 심지어는 버려진 지푸리기, 노끈, 헝겊, 쳇조각, 나무뿌리까지도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손만 거쳤다하면 새로운 장난감이 되었다.

"놀라운 솜씨야! 영실아, 미안하구나. 용서해다오. 어미를 잘못 만나 네 뛰어난 머리를 썩히는 구나."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온 영실의 어머니는 잠든 영실을 부둥켜 안고 밤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관가의 종이 된 재주꾼 소년

어느 사이 영실이의 나이 열살이 되었다. 그해 그에게는 실로 슬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나라의 법은 관노나 관기의 자식은 나이 열살이 되면 부모와 헤어져서 관노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총명하기로 소문난 영실이 그것을 모를리 없었다. 그는 하나 밖에 없는 가족인 어머니와 헤어진다는 것이 죽기 보다도 싫고 슬펐으나 결코 울지 않았다.

관가에서 종문서를 가지고 그를 데리러온 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목이 쉬도록 울었으나 그는 어금니를 깨물며 울음을 참고 어머니께 마지막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가 자라면 어머님을 편히 모실 수 있을것입니다."

"오냐, 영실아…불쌍한 자식 같으니라고…"

영실이 관노로 일하게 된 곳은 동래현 현청(현감이 근무하는 관청)으로, 그의 일은 늙은 관노들의 잔심부름이 고작이었다.

"네 어미는 관기라면서? 네녀석이 기집애처럼 예쁘장한 것도 네 어미를 닮은 거겠지?"

영실은 관노들에게까지 놀림을 받았다. 같은 신분의 관노들까지 놀리는데는 몹시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꾹꾹 참으며 견디었다.

하찮은 버려진 물건으로 기발한 장난감을 만들어보는 그의 습성은 관가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관노들의 놀림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틈만 나면 관가에서 버리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양반댁 아이들까지도 탐내는 희귀한 장난감으로 만들었다. 달구지·인형·가마 등등.

"저 녀석은 보통 녀석이아냐! 어린 녀석의 솜씨가 신동에 가깝거든."

"아무리 솜씨가 뛰어나면 뭘하나? 관노 주제에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대장쟁이가 되겠나, 목수가 될 수 있겠나? 다 부질없는 짓이야!"

"아니야. 녀석의 솜씨는 이미 대장쟁이나 목수보다도 비범해."

늙은 노비들은 영실의 솜씨에 어느덧 감탄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영실을 가장 못살게 굴던 젊은 노비들까지도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현청안의 어떤 부숴진 물건도 영실의 손만 거쳤다 하면 말끔한 새물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정확히 영실이 현청에 들어온지 일년째 되는 날이다.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지 노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내용인즉 현감 부인이 가장 아끼는 장농의 자물쇠가 고장이 났는데 현청안의 관리들은 물론 기술을 가졌다는 노비들 조차 고칠 수 없자 현감이 몹시 화가 난 것이었다.

"큰일이야. 사또께서 노발대발이셔."

"그러신들 어떡허누? 그 자물쇠가 어디 보통 자물쇠인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누?"

영실은 관노들이 웅성거리는 영문을 알길이 없었다. 무슨 자물쇠가 고장이 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까짓 자물쇠 하나 못 고쳐 저렇게 걱정이란 말인가. 그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늙은 노비에게 슬그머니 말을 건냈다.

"제가 하면 안되는 일이예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늙은 노비는 영실을 보는 순간 그를 덥썩 안고 현감 앞으로 달려갔다.

"사또, 이 아이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아니, 이 어린애에게?"

"그러하옵니다. 얼마전에 관노로 들어온 아이인데 솜씨가 비범하옵니다."

"그래!?"

현감은 늙은 노비의 말이 어이가 없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승락을 했다.

"네가 이 장농 자물쇠를 고쳐만 준다면 큰 상을 내리리라."

영실은 대답대신 허리를 굽히며 장농곁으로 다가 갔다. 현청안을 가득 메운 관리들과 노비들은 숨을 죽이고 영실을 지켜보았다.

영실은 자물쇠의 이곳 저곳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바로 이것때문이었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어렵지 않게 고쳐 놓았다.

"어허! 실로 놀라운 재주로다."

현감은 크게 기뻐하며 영실에게 새옷 한 벌을 상으로 내렸다. 그리고 현청안의 귀한 물건은 모두 영실에게 관리하도록 하라는 명도 함께 내렸다.

이때부터 영실의 총명함과 뛰어난 손재주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백년 가뭄을 홈통 발명으로 이겨

어느덧 영실의 나이 열다섯. 그의 총명함과 손재주는 고을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소문이 났고, 그리하여 민가에서까지 고장난 물건을 들고 영실을 찾아왔다. 그때마다 그는 친절히 고쳐주며, 그 공은 현감에게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에 감탄한 현감은 현청내의 무기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관리 자리를 맡겼다. 어느 사이 현청 안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었다.

바로 그해 여름의 일이다. 동래 고을을 비롯한 경상도 지방에는 백년만이니 그보다 더 오랜만이니 할 정도의 가뭄이 계속 되고 있었다.

논밭은 거북이등처럼 갈라지고, 곡식은 물론 산천초목이 말라 죽고, 우물까지 말라 백성들은 하나 둘씩 고을을 떠나고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할꼬? 기우제도 지내고, 무당굿까지 했는데도 비가 올 기색은 전혀 없으니…"

현감의 걱정은 밤낮으로 계속 되었다.

"혹시!?"

어느날 현감은 영실의 총명함을 생각했다. 그리고 급히 영실을 불렀다.

"영실아, 내힘으로는 더 이상 이 가뭄을 이겨낼 도리가 없구나. 너라면 혹시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까하여 불렀느니라."

영실은 한참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있어? 그게 무엇인고?"

현감은 크게 기뻐하며 영실의 손을 덥썩 잡았다.

영실은 자신이 관노로 오기전 친구가 없어 혼자서 뛰놀던 금정산 골짜기를 흐르는 강물을 생각했다.

"사또, 금정산 골짜기의 강물을 끌어오면 될 것 같사옵니다."

"이놈이 누굴 바보로 아나. 십리밖의 물을 어떻게 끌어온단 말이냐? 고이한 놈 같으니라고."

현감은 크게 화를 내며 영실을 당장 끌어내라고 명했다. 그러나 영실은 조금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또, 한말씀만 더 들어 주십시오. 제가 어릴적에 살핀 바로는 금정산 쪽은 이곳 동래보다 지형이 높아 물길만 터주면 물은 저절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네말이 맞도다."

현감은 순간 화를 풀고 또 다시 영실의 손을 덥썩 잡았다.

"그렇지만 영실아, 십리길을 물이 흘러오다 보면 곳곳의 계곡에서 다른곳으로 흘러 버릴텐데,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겠나?"

현감은 영실에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물었다.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사옵니다. 계곡에는 홈통을 만들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면 되옵니다."

"홈통! 맞아! 역시 너는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어. 신동!"

현감은 고을의 모든 백성을 동원하여 금정산 골짜기의 강물을 끌어 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이 공사의 책임자로 영실을 임명했다.

영실의 소원은 어머니 상봉

현감은 고을의 양반은 물론 현청의 모든 관리들까지도 영실의 일에 협조하라고 명했다.

밤을 하얗게 새워 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십리 물길의 설계도를 그린 영실은 또 다시 현감을 찾았다.

"실로 훌륭하도다. 서둘러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고을의 모든 백성이 동원된 물길 공사는 열흘 낮 열흘밤 만에 끝이 났다.

영실이 이때 만든 '나무 홈통'은 세계 최초의 발명품이었다.

"물이다. 물, 물, 물, 물……."

고을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물을 맞이했다.

현감도 영실도 그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있었다.

가뭄이 풀리자 동래 고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현감은 영실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기로 했다.

"영실아, 너에게 주는 상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하기로 했느니라. 큰돈이냐? 전답(논밭)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영실은 잠시 망설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또, 제 소원은 오직 한가지, 관노로 현청에 들어와 5년동안 뵙지 못한 제 어미를 만나는 것이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구 말구! 또 다른 소원을 말해보거라. 어서!"

"없사옵니다. 진정 없사옵니다."

"어허, 기특한지고. 서둘러 다녀오도록 해라."

이 소문은 동래에서 한양의 세종대왕에게까지 알려졌다.

우리 나라 임금중 가장 발명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세종대왕은 서둘러 영실을 대궐로 불러오라는 어명을 내렸다.

그 시간, 영실은 아무 것도 모른채 5년만에 만나는 어머니만을 생각하며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終〉

■아이디어뱅크 개설 안내■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등에 連繫시키므로서 汎國民的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對　　象** :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 ◉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 ◉ **接 受 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080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發明奬勵館(TEL : 568—8263)
- ◉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 ○ 分期別로 審査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 ○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 ○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査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